

이상도하을신저
그나라는노
娑婆世界모든일
刹那의꿈이
만사가無常일다

病床의秋夜

그리담치마소
일에일을구하니
滿은이업서라
못개는꿈이란
애담기도해

金 鍾 出

病床에 쓸쓸한가을밤
가만히.차는자최잇서
나의가상에홀너드노나

가을은애담은노래부른다
달알에말네무엇을하소연하노
오스리진慾됨으로바림은病을깨우네

새벽달

韓 英 錫

맑은하날 木별들은
치음듯이 파랏케일어
잠박잠박 아물거리고
西쪽에걸닌 새벽달 빛겨두어

우리에 맑의노래
넘는달 보냄이런가
이웃집婦女 솟가시는소리
피르음듯 찬서리우로

祝 一 光

鄭 載 璠

아! 一光아 一光
너의出世하기를
苦待苦待하다가
오늘에너를보니

이종경김한밤에
맑은달본것갓고
가물든나머지에
단비가온것갓다。

마음은홀너서

東 山 人

冊은 피어 놓은채
우뚱하니 앓았다
두의개를 힘없이 나려드리고
눈을 멀거니 드고.....

권어날줄 몰은는데
이맘은 갖엄시 홀너간다!

세벽 넘볼소리 그쳤다
구진비만 주르륵 주르륵
농청맛개 날어진 어둠은

울줄 몰은는 님을차차서
어데인지 몰은는모든을 피하오
冊을 덮혀버리고
도우뚱하니 앓은채
나의마음은 홀너간다!